



섬네일은 교생 첫 날 먹은 급식 사진

'네가 뭔데?'라고 물으신다면
뭐 안 되는 데 그냥 쓰고 싶어서 씁니다
저도 어린 편이지만
저보다 어리고 잘난 분들 많은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수 넘치는 행동 한 번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써야
그나마 남아있는 고3 기억 더듬어
남길 수 있는 글이니깐요

청개구리인지
추워지니까 안 먹던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한 녹차 초코바 사서
어금니로 질질질 씹으며 집 가는데
고3으로 보이는 학생이 지나가면서
'벌써 수능 일주일 남았어' 하는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교생을 다녀왔습니다
진로 고민이 지금보다 더 크긴 했지만
적당히 시간 때우고 올 생각으로 가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고등학교
모교 다녀왔어요
시간은 그냥 어찌어찌 갔던 것 같고
학생들에게 전하고픈 말은
많았던 것 같은데
준비 안 해서 뭐 하나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준비해온 편지 적당히 틀리면서 조금 울적하며 읽다가

블로그 QR 남기고 갔습니다

블로그 주제와 지수 개무시하고
무지성 니케 이벤트 글 공유하는 이 블로그를
아마 지금은
아무도 안 보리라 예상하지만
그냥 그 때 미처 다 못 했던,
지금이라도 하고픈 이야기를
지금은 고3으로 수능 앞뒀을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뿐인
2-2 학생들 포함한
고3들에게 남겨볼까 합니다
(TMI: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친구든 아이든 뜻만 통하면 OK 아닐까요)

사실 고3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때 나눈 카톡도, 사진도 많이 날아갔고
그냥 생각보다 열심히, 한 편으로는 생각보다 대충 공부해서
어떻게 잘 대학에 왔습니다

원체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부끄러운 기억, 민망한 기억, 슬픈 기억은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고등학생 때 가장 후회가 남는 건
그것이 학교 공부, 친구관계, 연애,
입시 준비, 돈 공부, 게임, 스포츠,
독서, 글쓰기, 코딩 등등
그 어떤 것이든
제대로 몰입해서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생 때보다 어쩌면 더한
베짱이 한량 인생을 즐기고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학생은
매일같이 자신과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큰 이해관계 없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만나며
관계망도 형성하고 소사회를 경험하며
사회로 나가기 전 수많은 추억을 쌓는
가장 제약이 많았음에도
아이러니하게 가장 자유로웠던
그런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 고3 다 끝나가는 마당에
'고등학생 시절이 좋았지' 같은 소리를 하면
놀리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놀리려는 의도는 아니고...
무엇보다 충히 말하고 싶었던 건 몰입의 기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 하나 집중해서 해보고
그것이 대입, 취뽕, 연애의
성공과 실패로 이어진다면

사회에서 매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말조차 흔해져 버렸지만
전 여러분에게 결코 공부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누가 하라고 해도 하기 싫으면
진짜 컷등으로도 안 들고 있거든요
내로남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는 필연이지만
그 크기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합니다
저는 '하기나 해', 'Just do it' 같은
노래 제목과 슬로건에 담긴 힘을
이제서야 어렵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사람들은 알아서 할 테고
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세요
대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가 떨어지면 때려치우더라도
그냥 뭐든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어중간한 게 나쁘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여기서만큼은 중용 지키려고 하지 말고
양 극단을 한 번 달려도 보면서
이것만큼은
남의 말과 글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의심하고, 상황에 맞게 현실에 적용해 보면서
'생각보다 별 거 없다', '생각보다 힘들다'를
직접 체감해 봤으면,
그 시기가 최대한 일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많이, 그리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여나 지금 남긴 글이 고3 분들께
자식에게 자신의 미련과 결핍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거는 부모의 말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스스로 느끼기에
여러모로 매우 부족하고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계발, 성공학 다루는 분들만큼
말에 무게를 실어줄 권위도 없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말만 걸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며칠만 더 고생하시고
수능 끝나면 면허도 따시고 수시 면접이고 정시고 뭐고
무지성 노시고 뭐 다 하세요
남들 하는 거 흉대병 걸린 것처럼
안 따라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 몇 반이었는지

기억 안 나서 인스타에서 검색하고
스승의 날 감사 케이크
얼마 먹지도 못하고 집에 두고 자취방 갔다가 썩게 만든
그저 쓰레기 금수 교생이었던 사람의
주저리주저리 끝

수능 파이팅!